

70점 체육교사의 삶과 고백: 교사로서 회의감의 근원에 대한 생애사 연구

장승현^{1,*} · 임새미^{2,†}

¹부산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강사

²부산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강사

(2021년 7월 29일 접수: 2021년 8월 26일 수정: 2021년 8월 29일 채택)

C Grad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Life and Confession : A Life History Research on root of Skepticism as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Seunghyun Jang¹ · Seami Lim^{2,†}

¹*Institute of Sport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Lecturer)*

²*Institute of Sport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Lecturer)*

(Received July 29, 2021; Revised August 26, 2021; Accepted August 29, 2021)

요 약 : 본 연구는 체육교사로서 회의감의 근원적 문제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준호 체육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1) '스테레오타입과 문화', 2) '훈육의 변화', 3) '혼란과 자책', 4) '참교사가 아닌 보통교사'의 내용이 도출되었다. 그 결과, 이준호 교사를 괴롭혀온 회의감은 '변화의 아이러니'로 설명될 수 있었으며, 그것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근원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시켜주었다. 결국, 학교 내 존재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모순으로 인해 이준호 교사의 감정적 소진은 필연적 귀결이었으며 그것은 한편으로 그가 이 시대의 평범한 체육교사임을 보여주고 한국사회 평범한 체육교사들의 삶과 고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체육교사, 교사소진, 회의감, 비동시성의 동시성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find the fundamental problem of skepticism as a PE teacher. For above, a PE teacher, Jun-ho Lee is selected as a participant of this study and used the life history method. Based on the result of above, the contents of 1) 'Stereotype and subculture', 2) 'Changing in discipline.', 3) 'Confusion and self-accusation', 4) 'Ordinary teacher, not a true teacher' is drawn. This result shows that the skepticism concerned the teacher can be explained as 'irony of change' and it is confirmed that this is originated by the fundamental background as 'simultaneity

[†]Corresponding author

(E-mail: smlim100@hanmail.net)

of non-simultaneous'. In conclusion, the emotional exhaustion due to the inconsistency of 'simultaneity of non-simultaneous' existing in the school is inevitable consequence, and on the other hand, it shows that he is an ordinary PE teacher and it helps to understand the life and worry of ordinary PE teachers in Korean society.

Keywords : physical education teacher, skepticism, simultaneity of non-simultaneous

1. 서론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는 속속들이 애들한테 상담을 많이 하려고 하고 친해지려고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하기 싫어져요. 교사로서 저는 한 70점 정도 되겠나...”

교사로 부임한지 10년이 넘는 이준호¹⁾ 체육교사의 말이다. 연구자의 후배인 그는 술자리에서 체육교사로서의 고충을 털어 놓으며 회의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70점짜리 교사로 평가했다. 연구자가 아는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사람일뿐만 아니라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교사였기에 그의 푸념은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안타깝고 지극히 사적인 그의 이야기는 학문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했다.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향해 품고 있는 불평, 불만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는 진정 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매년 임용고사의 경쟁률(2020년 기준 11.09 대 1)이 입증하듯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교사이기에 그의 회의감은 안타까움을 유발함도 동시에 많은 질문을 떠올리게 했다. 과연 퇴직을 떠올리게끔 그를 밀어붙인 것들은 무엇이였을까? 그중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였을까? 또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 배경, 맥락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의 탄식과 고충은 이미 여러 질문을 배태하고 있었다.

그가 들려준 고충과 회의감에 대한 이야기가 개인적 고민에만 그치는 것이었다면 학문적 호기심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을 테지만 그의 이야기는 개인적이면서도 결코 개인적이지 않았다. 그가 들려준 교권추락,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 등은 한 교사의 특별한 경험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것이었다. 보통의 체육교사가 충분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물론 그가 느낀 패배감과 회의감은 개인의 감정적 결과일 테지만 그 배경에 존재하는 사건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교사들이 빈번히 경험하는 것임이 분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2018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학교 교사들의 스트레스 수치(2.55)가 48개국의 교사 스트레스 평균 수치(2.4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201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는 89.4%의 교사가 교원 명퇴 증가의 이유로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을 꼽을 정도였다[2].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10명 중 8명(81.8%)이 현재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56.5%의 교사들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도 학교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3].

학계도 꾸준히 교사들의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와 교권침해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내놓았던 게 사실이며[4, 5, 6, 7, 8, 9], 이준호 교사처럼 체육교사의 고충, 어려움을 향한 관심[10, 11, 12, 13, 14]도 그러한 흐름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체육교사가 학교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의 연원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다루고[12] 체육수업에서부터 운동부육성, 행사 진행, 규율수호에 이르기까지 체육교사의 일처럼 굳어진 일들의 역사사회적 배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체육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실제적인 세부 직무를 중심으로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를 살펴보고[15], 업무 경감 또는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현장 체육교사의 교사소진에 주목하고 교직적응과 교사소명감의 실증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11].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체육교사 ‘일’의 실재를 다루면서 다른 교사들과는 구별되는 고충,

1) ‘이준호’라는 이름은 연구윤리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였다.

나아가 교사소진에 대해 분석하고 학문적 이해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이 체육교사 일의 실태를 밝히고 고충을 드러내는데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한 체육교사의 사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그 고충의 실체를 살펴봄으로써 근원적 배경에 다가가려 한다. 이준호라는 한 체육교사의 회의감에서 출발하여 역순으로 그 원인을 찾아가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당장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무적 고충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 찾는 작업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체육학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미 여성학, 심리학, 역사학, 교육학, 인류학, 문화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어[12] 온 생애사 연구방법은 개인이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기초로 사회·역사적 맥락을 통해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13, 14]에서 강점을 지닌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 공적인 것, 즉 맥락을 따로 분리할 수 없듯이 개인 삶의 역사적 발자취는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기도 하다[15]. 쉽게 말해, 생애사적 연구가 단지만 개인의 삶(이준호 체육교사의 삶)을 살펴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역사·문화적 맥락을 연결하고 이해[16]하는데 탁월한 연구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이준호 체육교사의 회의감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교직사회의 변화에 따라 한 체육교사가 겪게 되는 상처, 고민, 적응의 과정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그러한 과정은 체육교사를 향한 우리의 고정된 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 나아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체육교사의 삶과 문화,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Cole & Knowles[17]가 생애사 연구방법을 개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다 넓은 사회적 조건 혹

은 맥락을 발견하는 장으로 간주하였듯, 한 체육교사가 느끼는 회의감을 생애경험과 맥락을 통해 살펴보는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생애사 연구방법은 개인의 직업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질적연구방법으로도 알려져 있다[18]. 왜냐하면 개인의 직업적 삶을 탐구하는 생애사 연구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직업적 경험의 축적뿐만 아니라, 그러한 직업적 경험과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제도적 영향력을 탐구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19]. 그래서 Goodson & Choi[20]는 현장교사의 생애사 쓰기로 인한 맥락화 방법으로 제도적 맥락이 강조하면서, 현장교사의 삶의 궤적이 제도적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이 강조하였다.

2.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및 삶의 궤적

본 연구 참여자인 이준호 교사(39세, 남교사)는 1983년 부산에서 태어난 외아들로 자랐다. 공부를 곧 잘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반장과 학생회장을 경험했다. 성격은 상위권이었다. 스포츠도 좋아해서 친구들과 축구, 야구, 농구를 즐겼다. 처음에는 장래희망 직업으로 펀드 매니저를 생각했으나 고등학교 진학하고 두 명의 체육교사를 만나게 되면서 진로가 바뀌게 되었다. 두 명의 체육교사는 이준호가 지금까지 겪었던 체육교사와는 달랐다. 그동안 이준호가 학교에서 만났던 체육교사는 난폭하고 과격하면서 욕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그런 사람, 학생지도를 맡아 언제나 손에 ‘매’를 들고 다니던 사람, 이성적·논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무식한 사람에 다름 아니었지만 이 두 교사는 기존에 이준호가 가지고 있던 체육교사의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선생님은 조용하고 나긋하게 말하며 수업에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석사, 박사학위도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었다. 그들과의 만남은 이준호가 체육교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다. ‘체육교사도 저렇게 멋질 수 있구나’하고 이준호는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이준호는 체육교사야말로 자신과 가장 맞는 옷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체육교사를 하는 것에 반대했다. 중학교에서는 1등을 도맡아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학생회장도 했던 이준호는 부모님께 있어 자량이었고 부모님은 체육교사가 이준호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라 생각했다. 더군다나

부모님은 교사 중에서도 ‘체육’교사라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교사라는 직업이 당시 한국사회에서 공무원의 인기에 힘입어 인기직종이었음에도 ‘체육교사’가 한국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이미지 때문이었다. 이준호 스스로가 처음에 체육교사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지니고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모님도 체육교사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부모님은 이준호가 경찰대학교를 가서 경찰간부가 되길 바랐다. 성공이 보장된 직업을 얻길 원했다.

그렇지만 힘든 설득 끝에 이준호는 체육교사가 되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준호는 열심히 준비했고,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결국 이준호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市)에서 명문대인 A대 사범대학 체육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군 장교로 복무하며 시험을 준비하였고 2008년 전역과 함께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는 2009년 교사로 첫 발령을 받으며 교사의 삶을 시작하였다. 그는 인정받는 교사였다. 체육교재도 공동집필하였으며 현재는 B고등학교 1학년 부장교사(연구당시)를 맡고 있다. 또한 부당한 일에 있어서는 할 말은 하는 비판적 성향도 지니고 있다.

이준호 교사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체육교사로서 그의 삶의 궤적을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사건 중심으로 가시화한 것이 <Fig. 1>이다.

유년시절은 생략하고 고등학생 시기부터 체육교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체육교사로서 회의감을 느끼기까지의 삶의 궤적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이준호 교사의 행복했던 시점과 불행했던 시점을 중심으로 삶의 변화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결정적 사건과 행복했던, 불행했던 순간을 꼭짓점으로 놓고 이준호 교사에게 A4용지에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하였다. <Fig. 1>은 이준호 교사가 그린 것을 최종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삶의 궤적(trajjectory)에 타임라인(time line)을 결합한 형태로 이준호 교사의 전체적인 삶의 경향성과 형태를 파악하고 주제를 범주화하는데 활용되었다.

2.2. 자료수집

자료수집 방법은 생애사의 형태(일반적 생애사 연구, 주제중심 생애사 연구)에 따라 구분[21]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주제중심 생애사 자료의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ame	Gender	Age	Marital status	Position	Teaching experience
Lee JunHo	M	39	Married	Senior teacher	12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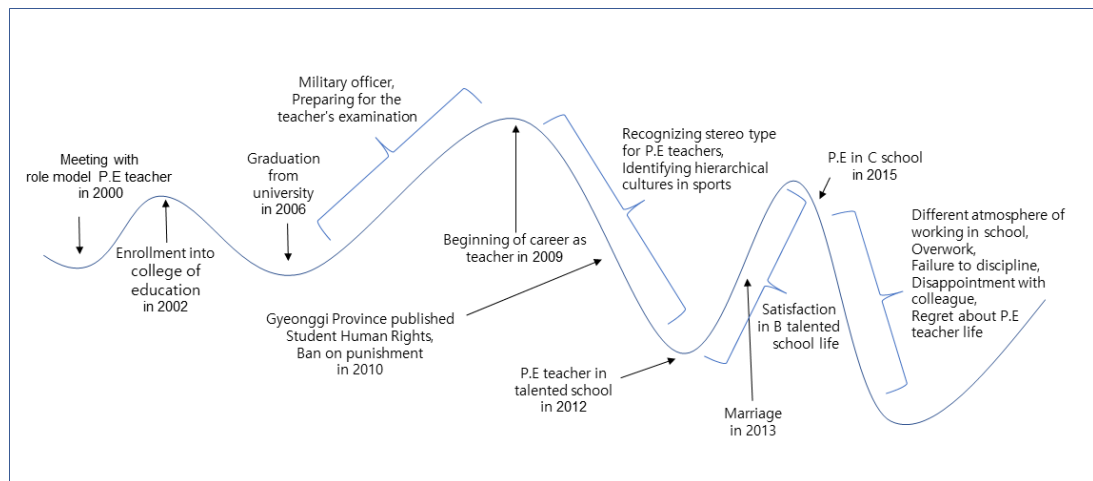


Fig. 1. Trajectory of life related to teacher Lee Joon-ho's scepticism.

심층적인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적인 생애사 연구의 자료 수집방법(초등학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개방적인 내러티브 면담)을 병행하였다.

면담은 5차에 걸쳐 진행했으며, 1차 내러티브 면담(비구조화)에서는 일반적인 생애사 자료 수집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2, 3, 4, 5차 내러티브 면담(반구조화)에서는 1차 자료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회의감과 관련된 질적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내러티브 인터뷰의 내용은 크게 삶 전체의 개관, 체육교사가 되기까지 과정, 교사관-정체성, 생애 주요한 사건 및 전환점, 대응 및 계획의 주요영역을 중심으로 질문내용이 구성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으며 이외에도 그의 학창시절, 청소년 시절, 대학생 시절, 군복무 시절, 임용고사 준비, 교사로 첫 부임과 경험, 체육교사로서 힘들었던 일, 부당했던 일, 좌절했던 일, 실망했던 일, 행복했던 일, 기뻐했던 일, 보람을 느꼈던 일 등 그의 삶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면담자료는 연구자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통해 수집했으며, 한 번의 면담은 1시간가량 이루어졌다. 5차의 면담이 진행된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이다(비공식적 면담은 8월까지 이어졌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로 주로 연구 참여자의 학교 상담실,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는 한컴오피스를 활용하여 전사(轉寫)하고 범주화를 진행하였다.

2.3. 자료 분석 및 글쓰기

본 연구는 이준호 교사의 회의감의 근원을 들여다보기 위해 1차 작업으로 그의 어린 시절부터 체육교사를 꿈꾸고 또 교사가 되어 초임교사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의 궤적을 그리게 했으며, 시간적 순서에 따라 결정적 사건과 행복했던, 불행했던 순간을 꼭짓점으로 설정하고, 2차 작업으로 거기에서 회의감을 형성토록 한 주요내용인 ‘체육교사를 향한 스테레오타입’, ‘체육계열의 위계적 선후배 문화’, ‘체벌금지로 인한 훈육의 변화’, ‘혼란으로 인한 자책’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준호 교사의 적응의 내용으로 ‘보통교사로서 인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3차 작업, 즉 최종적으로 범주화한 주제가 ① ‘스테레오타입과 문화’, ② ‘훈육의 변화’, ③ ‘혼란과 자책’, ④ ‘참교사가 아닌 보통교사’이다.

한편 이준호 교사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해석의 주관성과 현장성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실증주의적 글쓰기 양식[22]보다는 인문학적 글쓰기 양식을 지향했다. 제유(synecdoche)와 은유(metaphor) 같은 문학적 장치들도 활용하였다 [23]. 딱딱하기보다 부드럽게, 엄격함 보다는 유연함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3인칭의 실증주의적 혹은 사실주의적 글쓰기를 하기 보다는 이준호 교사의 경험과 생각을 보다 쉽게 전달하려는 글쓰기를 하고자 노력했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인 이준호 교사와 많은 대화와 생각을 나누었던 만큼 그의 입장에서 글을 쓰려 노력했다. 그가 느꼈을 감정과 기분을 독자 역시 함께 느끼

Table 2. Narrative interview

Classification	Questions
Life	What kind of family did you grow up in? What are your parents like? What kind of person are you? ...
The process of becoming a PE teacher	When did you decide to become a PE teacher?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 until you become a PE teacher ...
Teaching philosophy, identity	What kind of PE teacher are you? What are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as a PE teacher? Who is the best PE teacher? ...
Event, turning point	What was the hardest and happiest moment in your journey as a PE teacher? When did you start to feel skeptical as a PE teacher? ...
Coping, plan	How are you coping with skepticism? What are future plans as a PE teacher?...

고 동감을 얻게 만드는 것 역시 목표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러한 글쓰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준호 교사와 결과를 확인하고 함께 재해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4.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이야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ichardson[23]과 Kim & Han[24]이 제시한 생애사 타당도 준거(① 대화성, ② 반영성, ③촉매성, ④진정성, ⑤연결성)를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인 이준호 체육교사와의 수평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성을 추구하였다. 연구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연구 참여자를 존중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냈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이미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가까운 사이였기에 이러한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다. 둘째, 연구의 해석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일정 부분 참여시킴으로써 반영성을 추구하였다. 초기 원고를 가져가 연구자의 오독이 없었는지 검토를 부탁했다. 이에 이준호 교사는 흔쾌히 응했고, 오독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 재해석을 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그의 경험을 연구자와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체육교사로서 삶을 성찰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자의 해석에 대해 이준호 교사와 토론의 시간을 자주 가졌다. 여기서 이준호 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를 얻었다. 특히, 이준호 교사에게 있어 연구의 주제가면서 그동안 깊이 있게 생각해본 적 없는 회의감에 대해 성찰해보며 앞으로 어떻게 체육교사로서 살아야할지도 고민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이준호 교사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한편으로 솔직하고 깊이 있는 생애담을 이끌어 내어 이야기의 진정성을 추구하였다. 이미 이준호 교사와는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솔직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이야기를 정치·사회·문화·역사적 맥락 및 조건에 연결시킴으로써 연결성을 추구하였다. 그의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때의 정치·사회·문화·역사적 맥락 및 조건을 알아보려고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역사와 현대사를 다룬 여러 논문 및 보고서, 저서, 기사 등을 살펴보고 확인하였다.

3. 결 과

3.1. 스테레오타입과 문화

이준호는 4년의 체육학과 대학생활을 마치고 군장교로 3년을 복무했는데, 복무 중 비는 시간을 이용해 체육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했다. 평일에는 군복무를,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 학원을 다녔고, 그 결실은 2009년 임용고사 합격으로 이어졌다. 살면서 가장 좋았을 때를 임용 합격의 순간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임용고사의 합격은 이준호 교사의 삶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교사가 되어 A중학교로 첫 발령을 받게 되었지만 발령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교사로서 학교사회의 생활은 학생 때 보았던 것과 많이 달랐다.

한국 교직사회에서 체육교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정형화되어 있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체육선생들이 해왔던 일들. 전체조례에서 앞에 가서 애들 줄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체육선생한테 생활지도부장을 잘 맡긴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징계학생들 지도하고 이런 거를 체육선생님한테 맡긴다든가. 그게 뭐 초등학교처럼 남자 비율이 낮아서 뭐 맡기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교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직사회는 체육교사에게 그런 거를 요구해요. (2018년 11월 14일)

이준호 교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체육교사의 마초적 남성성의 이미지는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체육교사는 신체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강제하는 일에 동원되었다. 생활지도에서 사건사고의 처리, 징계 학생들을 지도, 조례시간에 학생 줄 세우기 등의 일은 일반적으로 체육교사의 몫이었다. 동료교사의 대부분은 체육교사가 그런 일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흡사 학교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혹은 군인과 같았다. 이준호 교사는 그런 현실이 실망스러웠다. 그가 꿈꿨던 체육교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체육교사를 꿈꾸고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체육교사의 이미지는 크게 바뀐 것이 없었다.

교사가 되고 나서부터 교사가 된 것을 후회했어. 발령받자마자. 몇 개월 지날 때부터 애들한테 대한 실망보다는 학교사회에 대한 학교조직에 대한

것,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 체육과 선배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을 내가 도맡아했지. 수업이고 뭐고. 선배들이 하나는 운동장, 체육관, 교실 수업이면 다들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운동장에들 다 자유시간 주라하고 나도 수업하고 싶는데 관리하라 그렇게 하고. (2018년 11월 14일)

학교에서 만난 동료 체육교사들은 이준호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같은 대학과 학과를 졸업한 동문선배들이었다. 학생 때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과 이준호 교사는 대학 동문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선배교사들은 이준호 교사가 편했지만 이준호 교사는 그들이 불편했다. 선배교사들이 이준호 교사를 동등한 입장의 동료교사로 대하기보다는 부하직원과 같이 대했기 때문이다. 체육교사의 업무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꺼려하고 힘든 일을 이준호 교사에게 부탁했다. 사실, 부탁이라기보다 명령에 가까웠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도 스스로없이 맡기곤 했다. 동일한 시간에 체육수업이 겹치는 날이면 선배교사는 다른 급한 일이 있다며 수업을 맡기기도 했고, 동시에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한정된 운동장 공간에서 우위를 점하곤 했다.

부당함에 항의하고 싶었지만 쉽사리 그럴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체육계열 학과가 고질병으로 앓고 있던 ‘우리가 남이가?’ 문화 때문이었다. 전 체제주의적인 군사문화가 녹아 있는 체육과의 선후배 문화에서 관계는 ‘군기’로 맺어지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위계관계가 뚜렷했고 그것을 지켜야 했다. 선배의 말을 거스르는 것은 곧 대한민국 체육교사 사회의 관습 또는 00대학교 체육교사의 선후배관계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었다. 만약 이준호가 부당함에 항거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좁디좁은 교직사회에서 그는 손가락질 받고 일탈자가 될 지도 몰랐다. ‘선배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후배가 그러면 안된다’, ‘버릇이 없다’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올게 뻔했다. 그래서 때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도 꼭 눌러 참고 돌아 설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사회에 던져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초임체육교사 이준호의 선택지는 인내하는 것 한 가지였다. 이준호 교사는 ‘내가 이리려고 교사가 되었다.’ 라는 생각에 부임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 체육교사가 된 것을 후회했다. 교직사회에

대한 불만과 실망은 그를 꽤 오랜 시간동안 힘들게 했다.

3.2. 훈육의 변화

2015년 이준호 교사는 C학교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전에 근무했던 B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B학교)²⁾의 근무환경이 너무나도 좋았기에 타학교로 전근을 가는 것에 아쉬움이 컸지만 어쩔 수 없었다. C학교는 B학교와는 정반대였다. 그곳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고, 폭력사고도 많이 일어났다. 이준호 교사는 어김없이 생활지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동안 B학교에서 하지 않았던 업무들을 다시 하게 되었고, 일의 강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우리 학교 학교폭력 지금 일어난 거 세 건이 있는데, 세 건이 다 수업시간에 싸운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수업시간에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뒤에서 치고 박고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세 건씩이나 3월 달에만...(2019년 4월 24일)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사건이 일어났으며, 교문에서는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학생들과의 몸싸움으로 상처가 나기도 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을 매일 상담하고 훈육해야 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건들과 마주해야만 했다. 이 모든 걸 문서화시켜야 했기에 페이퍼 워크의 양도 상당했다. 그래서 정규 업무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페이퍼워크에 파묻혔다. 이준호 교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이 힘들음은 이전의 A중학교에서 느꼈던 힘들과는 질적으로 많이 달랐다. 단순히 일의 양이 많아진 것, 이상이었다. 실제로 이준호 교사를 가장 괴롭힌 것은 급변한 학생지도방식, 즉 훈육의 방법과 제도의 변화였다. 그가 그동안 알고 있고,

2) B한국과학영재학교는 한국의 여타 중등학교와는 달리 한국의 엘리트 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됨으로써 교육부가 아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다. 그래서 전국의 과학수재들이 모이는 학교라는 점, 학생 대비 교사 수가 많다는 점, 교사가 행정업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여타 학교와 다르다.

또 해왔던 훈육방법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경기도하고 학생인권조례 이런 것들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2009년에 발령 받았는데, 9년, 10년, 11년, 그때까지만 해도 애들 많이 때렸다고, 담배 핀다고 때리고, 지도할 때도 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복장단속이나 머리 두발 이런 것도 심했고, 영재학교 3년 다녀와서 2014년 되니까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일반 학교에 가니까. 그거하고 인권조례 발표된 시기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중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전혀 터치를 안 받게 되고 선생님들도 매를 들지 않다보니까. 학생들을 통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통제를 할 수 없다보니 안하게 되는 거고, 내버려 두게 되는 거고. 애들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손을 놓는 거죠. 말해봐야 자기만 열 받는 거지. 나한테 어떤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유일한 거는 대화인데, 아이 들하고 대화가 잘 안되지. (2019년 4월 24일)

이준호 교사가 B학교에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학교사회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2010년 체벌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확대되면서 체벌금지를 전면적으로 명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26]되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학생의 인권보장’과 ‘교권의 약화’가 있었다. 한국사회의 ‘매’가 지니는 전통성으로 인해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체벌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학생지도가 힘들게 된 것이었다.

지금은 좀 과도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교사의 권위가 없죠. 애들 샘이 소리 지르면 애들은 피식 쪼개는 정도니까. 욱박지르면 옛날에는 쪼는 척이라도 하지만 지금은 웃어버리니까. 미쳐 버린다니까요. (2018년 12월 6일)

이준호 교사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면서 마초적인 체육교사를 경험한 세대이면서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체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은 그에게도 당혹스러웠다. 꼭 체벌을 하지 않더라도 체벌의 존재자체로 훈육이 가능했고 그것을 활용해왔던 그였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급진적인 변화에 그는 어떻게 행동할지 몰랐다.

3.3. 혼란과 자책

훈육과 관련된 많은 것이 변했고, 그러한 변화는 또 다른 상황을 만들었다. 체벌을 대체한 훈육이 효과가 없게 되면서 교사들은 운이 없으면 학부모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럴 경우, 학교의 교육 행정가들은 그들의 진급을 신경 쓰면서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들에게 그냥 넘어가라며 종용하기 일쑤였다. 평교사의 입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잘못보이면 진급을 할 수 없었기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이준호 교사는 학생을 포기하는 주변 동료 교사를 종종 목격하게 되었다. 몇몇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한 듯 보였다. 괜히 나섰다가 큰 피해를 입기 싫었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해야 하는 형식적인 수업과 업무 이외에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보다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그냥 지나치거나 형식적인 지적만 하는 모습이였다.

교사에게 욕설하는 학생, 교사를 소송하는 학부모, 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사. 이와 같은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지만 이준호 교사는 ‘월급쟁이’가 되어버린 동료교사를 보는 것이 더욱 슬프면서도 화가 났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가 꿈꿔왔던 체육교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하면 편한 거지. 그렇게 살다 보면 교사라기보다 월급쟁이가 된다는 느낌. 이미 학교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될 바에야 내가 교사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학교를 나와야 된다. (2018년 11월 14일)

힘들어도 교사는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 해야 하는데, 교육자이길 포기한다면 교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였다. 변화하는 학교와 그 안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지도권이 부재한 상황, 이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학교, 그리고 이 혼란 때문에 교사이길 포기하고 월급쟁이가 되길 자처하는 동료들, 이 모든 상황은 이준호 교사로 하여금 체육교사로서 회의감을 들게 하는 것이였다. 동료들의 행동이 싫기도 했지만 이준호 교사는 시간이 갈수록 저것만이 해결책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볼 때면 스스로가 싫어진다고 고백했다.

선생을 9년 하잖아요. 다른 선생을 보잖아요. 선생이 그렇게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해 보니까 재미가 없지는 않은데,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 (2018년 12월 6일)

‘난 체육교사와 맞지 않는 것일까?’, ‘언제까지 체육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준호 교사를 괴롭혔다.

3.4. 참교사가 아닌 보통교사

롤 모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사범대에서 공부하고 임용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학교생활하면서 직접 부딪히면서 더 많이 겪게 된 거죠. 좀 변화가 있었겠죠. 예전에 난 체육교사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2018년 12월 20일)

이준호 교사도 본인이 이상적인 참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명의 체육교사 은사님을 보고 체육교사의 꿈을 키웠을 때의 교서관과 지금의 교서관은 분명 차이가 있었다. 이준호 교사는 이전에는 스마트하고 기능이 뛰어난 교사가 참교사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기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교사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길러 줌으로써 아이들을 성장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교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답이라 생각했다.

어떤 샘들은 안 그러거든요. 자기가 희생해서 금요일 저녁에 남아서 수학 가르치고, 그 사람은 그게 즐거운 거야. 어느 정도 교사의 역량을 100을 발휘해야한다면 나는 100을 발휘하기 싫어요. 솔직하게 그 정도까지 희생해서 내가 애들한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래서 내가 적성에 안 맞는다든 게 적성에 안 맞는다든 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2018년 12월 6일)

물론 그는 스스로 참교사가 아님을 고백했다. 참교사는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그러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데 솔직히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교사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준호 교사는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한다. 수업시간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지 않는 경우, 흡연 학생을 방과 후에 반성문을 쓰게 할 경우처럼 훈육이 필요한 순간임에도 자신의 노력이 의미 없는 일이 될까, 혹은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지나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다. 참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희생까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스스로를 참교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교사는 아니라고 했다. 어쩌면 이것이 참교사도 아니지만 교사이길 포기한 월급쟁이 교사도 아닌 그 중간의 어디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체육교사의 입장은 아닐까.

나를 교사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열정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기본은 지키면서 할 일은 하되 조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교사로서의 활동들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18년 12월 6일)

이준호 교사는 속 시원하게 스스로 해답을 찾아 완전히 고민거리를 해결한 게 아니었다. 분명 앞으로도 고민과 갈등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자괴감에 빠져 교사를 그만둔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는 나를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교사로서 몇 점을 줄 수 있느냐는 말에 70점이라고 답했다. 70점을 매겼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의 반증은 아닐까. 그리고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이준호 교사, 그는 분명 참교사는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그의 체육교사로서 삶과 경험은 보통의 대한민국 체육교사가 느끼고, 고민하고, 경험했을만한 것들을 잘 보여 주었다.

4. 논 의

4.1. 변화의 아이러니

한국에서 체육교사는 오랫동안 학생지도라는 명목아래 학생들을 관리·통제·처벌하는 역할을 도맡아 왔다[27, 28, 29]. 물론 그러한 일이 체육교사에게만 맡겨진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지도는 체육교사라면 응당 해야 되는 일³⁾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다[28]. 류태호[30]의 연구에서 체육교

사가 미친개, 사이코, 독사, 시한폭탄, 저승사자 등의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폭력을 쓰는 '거칠고 폭력적인 인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지적 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이준호와 그의 부모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체육교사를 향한 부정적 시선도 바로 이러한 한국 체육교사의 스테레오타입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준호가 체육교사를 꿈꿀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두 체육교사와의 조우를 통해서였다. 하지만 교사가 되어 그가 학교에서 목도한 것은 1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는 체육교사를 향한 시선과 이미지였고 그것은 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학교에서 만난 동료교사이자 대학동문 선배 역시 초임교사인 그를 도와 주기는커녕 힘들게 만들었다. 체육계열학과의 위계적인 선후배 문화[31, 32] 아래 자행된 대학동문선배들의 횡포였다. 이처럼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던 학교의 현실은 이준호 교사의 초임교사 시절을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정작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⁴⁾은 학교의 변화였다. 201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학교는 체벌이 사라졌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모두가 알고 동의하는 말이었다. 폭력을 옹호하는 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체벌금지라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에서 체벌은 오랫동안 교사들의 대표적인 훈육법이었다. 체벌은 그동안 '매'라고 불리며 관습적, 전통적 성격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33]. 문제는 이러한 체벌이 사라지면서 교권이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데 있었다. 체벌이 사라진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 것이다.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욕설, 폭력은 사회문제로 불

거졌다[34]. 물론 교권의 추락을 체벌금지와 직접적으로 결부지어 볼 수는 없다. 다만 체벌금지에 대비하지 못했던 탓에 교사들의 고충이 심화된 것만은 사실이었다[35, 36]. 가혹한 입시경쟁, 기능주의, 성과주의를 배경으로 시험성적을 올리는 데 특화되어 있는 사설 학원이 학교보다 더욱 신뢰받는 사회분위기에서 교사의 권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추락하는 교사의 권위를 억지로 붙잡아 주던 것이 어찌면 체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교사의 권위라는 것이 무릇 학생들에 의해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 빈자리를 체벌이 지탱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교권침해 건수만 총 1만2천311건에 이르며 2015년 이루어진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교사들의 절반 이상(55.8%)이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기도 했다[37].

이에 대한 대응으로 몇몇 교사들은 '학생들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선택했다. 이준호의 일부 동료교사들 역시 월급쟁이 교사가 되길 선택했고, 그런 동료들을 보며 이준호 교사는 안타까움과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다고 평범한 교사인 그가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내해야하는 참교사가 되는 것도 어려웠다. 물론 최악의 교사가 되는 것은 스스로가 허락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비판했던 동료교사들의 선택이 옳은 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난 체육교사와 맞지 않는 것일까?', '언제까지 체육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금은 스스로가 보통교사임을 인정하고 현실에 나름 순응함으로써 교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체육교사가 본인에게 맞는 직업인지 자문한다고 했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를 괴롭혀온 체육교사로서 회의감은 '체육교사를 향한 스테레오타입', 체육교사 간 존재하는 '위계적인 선후배 문화', '체벌 금지와 교권의 추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근원적 배경에 '변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감의 배경 및

3) Lee[28]는 그의 연구에서 1970년대 군부정권을 배경으로 체육교사가 학생부에 배치되고 생활지도, 소위 규율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로 인식되었다고 지적한다.

4) 이준호 교사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을 꼽자면 체벌 금지, 교권추락의 문제라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위계적인 선후배 문화는 시간이 흘러 이준호 교사가 선배의 위치가 되면서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고, 체육교사를 향한 스테레오타입도 학교 내에서 스스로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체벌금지와 교권의 추락은 그의 교사관을 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5) Kim[6]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에 교실붕괴, 교권침해 등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이항 대립적 프레임의 문제를 지적한다.

원인들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모두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체육교사의 스테레오타입과 위계적 선후배 문화는 변해야 했음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었던 반면 체벌금지와 교권의 추락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급변한 것’이었다. 교직사회 내 시선과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이 없었지만 학교 밖의 인식과 제도는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었던 것이다. 동일한 공간임에도 전혀 다른 변화의 시간이 낳은 모순은 그렇게 이준호 교사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것으로 보인다.

4.2. 비동시성의 동시성

같은 시대에 다른 시간이 존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비동시성의 동시성(比同時性 同時性)’이라 한다. 독일 시대의 역사철학자인 에르스트 블로흐의 비동시성 개념[38]이다. 블로흐는 바이마르 독일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현상을 목격하면서, 비동시성과 동시성 간의 모순의 변증법은 다중적 시간 뿐 아니라 다공간적 차원에서도 일어난다고 주장했다[39]. 때문에 임혁백은 이러한 비동시성 개념이 독일보다 한국에 더 잘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39]. 한국이 후발 근대화를 외삽적, 압축적으로 발전단계를 뛰어 넘어 돌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근대적 정치, 문화, 습속을 정리하지 못하고 근대로 서둘러 진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준호 교사가 경험한 그 변화의 아이러니 역시 비동시성의 동시성 아래 이루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체벌이라는 전근대적 시간, 주입식 교육과 전쟁으로 비유되는 입시제도라는 근대적 시간,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적 학생들의 탈근대적 시간이 학교 안에서 공존하면서 충돌한 것이다. 거기에는 압축적 근대화, 군사정권의 잔재, 매번 변하는 교육제도, 다양한 문화와 세대차이 등의 배경이 있었다.

이준호 교사는 어떤 세대인가? 그는 근대적 사고와 탈근대적 사고를 지닌 교사에 가깝다. 그는 학창 시절(1990년대) 전근대적 교육(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경험하고 자란 세대인 동시에 교사가 되기 위해 근대적 교육을 받았으며 탈근대적 사

고를 지닌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체벌을 경험했으나 이후 교사교육과정에서 체벌의 부당함을 교육받았던 교사세대이다. 때문에 학창시절 내내 자연히 각인된 체벌의 경험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실제로 이준호 교사는 초임교사 시절에 사범대학교에서 배운 근대적 가치관, 교육관, 교사관을 나름 정립시키고 사수하려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체벌이라는 전근대적 유산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그는 모순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존재, 위치로서는 중간에 끼인 세대에 다름 아니었다. 학교라는 곳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모순이 지배하는 곳이었기에 고민-좌절-회의감으로 이어진 그의 감정적 소진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수 있다. 그는 이 시대의 평범한 체육교사일 뿐이기 때문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스스로를 70점 교사라는 이준호 체육교사의 고백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체육교사의 회의감의 근원을 찾는 여정이었다. 연구 끝에 그를 괴롭혀온 ‘체육교사를 향한 스테레오타입’, 체육교사 간 존재하는 ‘위계적인 선후배 문화’, ‘체벌금지와 교권의 추락’이라는 여러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준호 교사의 회의감이 변화의 아이러니, 즉, 동일한 공간임에도 전혀 다른 변화의 시간이 낳은 모순이 야기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교직사회의 변화에 따라 한 체육교사가 경험한 상처, 고민, 적응의 과정을 가까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많은 이들이, 아니 어쩌면 체육교사마저도 당연하게 여겼던 체육교사를 향한 우리의 고정된 시선, 그리고 체육계열 학과 출신 선후배 사이 위계적인 문화의 잔재를 확인시켜주었다. 게다가 교권추락이라는 사회적 현상 아래 체육교사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느끼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건과 현상 뒤에 위치하는 근원적 구조, 그러니까 학교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의 모순을 에르스트 블로흐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개념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었다.

기존의 체육교사의 고충과 교사소진을 다룬 연구들이 그들의 ‘일’에 주로 집중했다면 상대적으로 본 연구는 전술한 것처럼 ‘일’을 받아들이는 체육교사가 어떠한 배경과 구조 아래 그것을 경

6) 한국은 1945년 일제의 강점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며 1950~1953년의 6.25전쟁을 거친 뒤, 미군정을 지나 군사정권의 독재, 민주화 운동, 급진적인 경제성장을 짧은 시간에 동시에 발생한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한 국가이다.

힘하고 느끼는지, 또 수용하는지에 주목했던 연구다. 즉, 체육교사라는 ‘주체’와 ‘구조’에 보다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가 가지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이자 작은 의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 연구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체육교사의 삶과 문화,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면 코로나 19로 인해 혼란에 가까운 변화 소용돌이에 직면한 학교체육,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교사들을 이해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것 기대해 본다. 이 연구가 끝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뒤덮었고 학교 역시 그 소용돌이에 갇혀버렸다. 체육교사 역시 새로운 환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물론 현재 이미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의 상황과 교사들 또한 시시각각 변화 중이다. 다시 말해, 학교와 체육교사는 변화에 대응, 적응하며 새로운 체육수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육교사의 삶,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변화아래 또 다시 체육교사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삶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19 시국 아래 체육교사의 삶을 이해하려는 다각도의 시도와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감사의 글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과제번호)(NRF-2018S1A5B5A07073647)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RF-과제번호)(NRF-2018S1A5B5A07073647).

References

1. S. H. Hwang, “The Main Culprit of Stress-Prone Korean Middle School Teachers Is Excessive Administrative Work”, *Busan Ilbo*,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52009373284768>, (2021.05.20.).
2. S. H. Han, “More Teachers Are Leaving The Church In South Jeolla Province. Concerns About A Gap In Education Gaps”, *SegyeIlbo*,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125512071>, (2021.01.25.).
3. S. Y. Lee, “Parents Threatened To Kill...Teacher’s Day, Bitter About The Fall Of The Teaching Authority”, *Cookie News*,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5140185>, (2021.05.15).
4. K. Jeon, “Issues and Tasks Of Legislation For Protection Of The Teacher’S Right And Authority”.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0, No.4 pp.53-72, (2012).
5. D. K. Kim, J. P. Lee, S. H. Kwon, J. H. Kim, S. Y. Kim “A Study On Infringement Experience Of Teachers’ Right: Based On Teachers In Gangwon-Do”,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2 pp.499-526, (2020).
6. C. Kim, “Eine Studie über Das Recht Des Schülers Und Die Autorität Des Lehrers in der Schulerziehung- Im Hinblick Auf Die Theorie Des pädagogischen Bezugs bei H. Nohl”, *Korean Educational Idea Association*, Vol.26, No.2 pp.1-19, (2012).
7. M. J. Lee, “Conceptual Structure Of Teachers’ Rights And Case Analysis Of Teachers’ Rights Infringement ”, *Educational Complex*, Vol.54, No.3 pp.1-28, (2017).
8. K. S. Cho, S. W. Jeong “A Study On The Concept And Infringement Remedy Of Teachers` Rights”, *Education and Culture Research*, Vol.22, No.6 pp.33-57, (2016).
9. Y. S. Hyu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eers&Quot; Supports As Links Between Teacher’s Job Dissatisfaction And Voices For Improvement”,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0, No.24 pp.147-164,

- (2006).
10. Y. J. Kang, J. A. Yoo, "An Analysi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On Occupational Importance-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Vol. 33, No.3 pp.21-37, (2019).
 11. Y. C. Kwon, G. S. Cho, "Verification of the Mediated Effect Of Adaptation To Teaching Profession On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Burnout And Teachers' Voc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In School".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60, No.1 pp.177-187, (2021).
 12. A. Ojermark, "Presenting Life Histories: A Literature Review And Annotated Bibliography." *Chronic Poverty Research Centre Working Paper*, 101, (2007).
 13. S. E. Min, Y. C. Kim, J. H. Jung, "A Study On The Effective Analysis Method Of Life History Research.", *Research Institute for Science Education*, Vol.54, No.4 pp.621-638, (2015).
 14. C. Kohler Riessman, "Analysis Of Personal Narratives."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pp.168-191, (2000).
 15. T. L. Yoon, "Can Women Speak? :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Of Women's Oral History.",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Vol.27, No.2 pp.77-111, (2010).
 16. J. Dollard, "Criteria for the Life History: With Analyses Of Six Notable Documen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83, No.6, pp.753-754, (1935).
 17. A. L. Cole, G. J. Knowles, "Lives in Context: The Art Of Life History Research.", AltaMira Press. (2001).
 18. A. Wicks, G. Whiteford, "Conceptual and Prac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Reflections On A Life-History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13 No.2, pp.94-100. (2006).
 19. D. S. Lee. "Life History Research" Academy Press, Seoul. (2015).
 20. I. Goodson, P. L. Choi, "Life History And Collective Memory As Methodological Strategies: Studying Teacher Professionalism." *Teacher Education Quarterly*, Vol. 35 No.2, pp.5-28. (2008).
 21. K. H. Han, "The Life Of A Man From A Life-History Study." *Society for the Quality of Life and Family*, Vol.2005 No.11, pp.1-30. (2005).
 22. C. Bazerman, "Literate Acts And The Emergent Social Structure Of Science: A Critical Synthesis", *Social Epistemology*, Vol.1 No.4, pp.295-310. (1987)
 23. V. Richardson, "Conducting research on practice." *Educational researcher*, Vol. 23 No.5, pp.5-10. (1994).
 24. Y. C. Kim, K. W. Han, "Life Story Research'S Character And Meaning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Education and Culture Research*, Vol.18 No.3, pp. 5-43. (2012).
 25. P. Sikes, "The Ethics Of Writing Life Histories And Narratives In Educational Research. Exploring Learning.", *Identity and Power Through Life History and Narrative Research*, pp.11-24. (2010).
 26. S. W. Jeong, "The Current Status & Public Legal Issues On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Korean Educational Law Society*, Vol.23 No.2, pp.193-212, (2011).
 27. Y. K. Kim, J. A. You,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The Specialized High School Teaching Culture Of New Sports Teacher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7 No.3, pp.809-821. (2018).
 28. C. W. Lee, "A Study Of Historical Sociology On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ork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3, No.3 pp.279-289. (2004).
 29. C. W. Lee, T. H. Lyu, "A Research On Physical Education Teachers' Response Methods In Secondary School Works",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Pedagogy*, Vol.11, No.1 pp.17-30, (2017).

30. T. H. Lyu, "A Study On Educational Meaning About Physical Education Teachers' Nicknam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Pedagogy*, Vol.7, No.2 pp.87-98, (2000).
31. E. J. Lee, "A Study On The University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5 pp.715-736, (2019).
32. N. M. Lee, H. G. Lee, "A Study Of Socio-Cultural Backgrounds And Problems About The Taming Of The Freshmen In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And The Method Of Its Improvement.", *Korean Sociology for the Sociology of Soprt*. Vol.22, No.4 pp.19-43, (2019).
33. S. Shin, M. S. Koh, "Korean Education In Cultural Context." *Essays in education*, Vol.14 No.1, pp.10, (2005).
34. S. Y. Kim, I. S. Oh, " Influencing Factors On Post-Traumatic Growth Among Teachers Who Experience Violence Victimization As Post-Traumatic Stress: Mediator Of Self-Disclosure And Rumination And Moderator Of Social Support.",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57. No.3, pp.383-398. (2018).
35. K. A. Park, H. J. Park, "The Study on Infringement Condition Of Teachers' Right And Coping Course Of Teachers' Bullying By Victimizatio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On Teacher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Vol.32 No.2, pp. 93-122. (2015).
36. G. M. Lee, E. S. Cho, "A Study on the Mediating Factors On Violence Against Teachers And Their Effec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7 No.4, pp.1001-1022, (2015).
37. S. Y. Jeon, "Teachers Leaving School In The Face Of A Fall In Teaching Authority.", *Yonhap News*,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5129700797?input=1195m>, (2019.03.22.).
38. E. Bloch, M. Ritter, "Nonsynchronism and the Obligation To Its Dialectics." *New German Critique*, Vol.11, pp.22-38. (1977).
39. H. B. Im, "Reading Modern Korean Politics With The Languages Of Humanities: Interpretations Of Literatures Quoted In Simultaneity Of Non-Simultaneous",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54, No.2 pp.153-201, (2015).